코로나19 ()4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metr⊕

## 29번 환자 아내도 확진 판정

# 감염경로 불분명… 지역확산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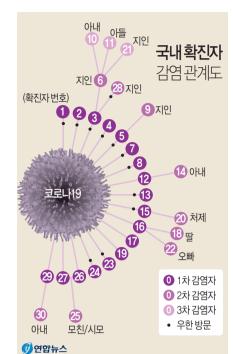
29, 30번 환자 방역망 넘은 첫사례 정부,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 등 제시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환자 접촉자 로 관리도 되지 않아 감염경로가 불명 확한국내 29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82세·남성·한 국인)의 아내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29 번 환자의 아내가 30번 환자(68세 여 성, 한국인)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하 지만 감염경로 불분명한 29·30번 환자 가 등장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 회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대 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번 환자는 전날 29번 환자가 확진 된 이후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가 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대병원)에 격 리 입원했다. 전날까지 특이증상은 없 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 지만, 현재까지 29번, 30번 부부환자 모 두 중국 등 해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



이 없고, 다른 코로나19 환자와도 접촉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나온 첫 사례로 보인다.

지역 사회에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나옴에 따라 지 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지역사회 확산 선제적 대비해야

정부가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등장한 데 대해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 리핑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인지는 29.30번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 역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것으로보인다"며"29·30번에대한판 단결과와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 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정부는지역사회나의료기관을 통한 전파를 차단할 방안으로 ▲ 원인 불명 폐렴환자 전수조사 ▲ 해외여행 력 없는 의심증상자 적극적 진단검사 ▲ 상시적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환 자 조기 발견 등을 전날 제시한 데 이어 이날은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의 중 국·홍콩·마카오 여행력 전수조사 카드 를 꺼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관광업체 500억 융자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 〉〉 1면 '항공·해운·관광…'서 계속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을 확보하고 공동 항로를 개설 하며 해외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시나리 오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관광업과 관련해선 "중소 관광 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 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 예할 것"이라며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 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 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3조원 한도인 지역사 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 다"고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 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 를 높이겠다"며 "푸드페스타 조기 개 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 현대화 조 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 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 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 도록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

홍 부총리는 일본이 작년 고순도 불 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생산과 수출은 견 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 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점 검했다. /한용수 기자·연합뉴스 hys@

## 中 코로나 '주춤'… 신규 확진 나흘째 2000명대

## 시진핑 국가주석, 직접 해명나서 이동통제 강화·사태 수습 사활

중국에서 맹위를 떨쳐온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 모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아 직 각각 2000여명과 100여명 수준을 유 지하는 등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여 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해명에 나서고 당국이 춘제(春節•중국 의설)이후대규모이동통제를 강화하 는 등 사태 수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우한에 투입되는 구이저 우(貴州) 성 의료인 137명이 16일 구이양(貴 陽) 시 롱동바오 국제공항에 나란히 서 있다.

16일 하루 동안 전국의 코로나19 확진 자가 2048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105명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7 만548명이며 사망자는 1천770명이다.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 일 5090명을 기록한 이래 16일까지 사 흘째 2000명 선을 유지했다.

발병지우한(武漢)이 있는후베이(湖 北)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일째 신 규확진자가 줄었다. 지난 3일 890명으 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15일 166 명, 16일 115명으로 이틀째 100명대를 기록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1933명, 사망자는 100명 증가했다. 이틀째 확진

/이세경 기자

폐쇄된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17일 국내 29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다녀온 서울 성북고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 문 앞에 응급실

/손진영 기자 son@

## "나 확진자인데"… 방역 금전요구 주의 자 증가 수치가 2000명 미만이었다.

코로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시도 증가

"나 코로나19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어"라고 확진자를 사칭해 금전을 요 구·협박하거나, 전화로 질병관리본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해 방역 등을 위해 금전이나 앱 설치 요구 하는 사기가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 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 싱•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 부했다.

최근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이외에 도 전화로 보건당국•확진자 등을 사칭 해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 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유사 범죄시도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또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 배배송 지연'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 한 스미싱 문자 시도 사례가 지속적으 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인 발신번호 변작 사례가 지난 15일 165건 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 싱 등으로 인한 일반국민 및 자영업체 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협력해 모든 국 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향후 사태 안정시 까지 필요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 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 치들과 병행해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 다"며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정보 탈취 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 분실하 였을 경우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 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 스, 킬스위치(Kill switch)의 3종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아시아나, 노사와 손잡고 코로나發 경영위기 대응

창립기념일 맞아 공동선언문 발표

아시아나항공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코로나 19와 경영환경 악화로 촉발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3대 노조와 뜻 을 모았다.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사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 조합(APU: 위원장 김영곤)', '아시아 나항공 일반노조(위원장 심규덕)', '아 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조(위원장 곽상기)' 3대 노조와 함께 '위기 극복과 합리적노사문화정착을위한아시아나 항공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안전운항 수행을



김영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위원장과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심규덕 아 시아나항공 일반노조 위원장, 곽상기 아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 17일 서울시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위기 극복과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위한 전심전력의 노력 ▲노사협력의 중 요성 인식 및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노조는 위기극 복에 한마음으로 동참, 회사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공동의 노력을 통한 현 위기상황 극복 및 항구적 노사 상생의 문화 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성운 기자 ysw@